

# 고로쇠 계절이 돌아왔다

## 광양 등 주요 산지 이달말부터 채취 올 258만ℓ 예상 100억원 소득 기대

‘고로쇠의 계절이 다가왔다.’ 전남도는 순천, 광양, 담양, 곡성, 구례, 보성, 화순, 장성 등 도내 고로쇠 주요 산지에서 이달 말부터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 시작된다 고 20일 밝혔다.

고로쇠 수액은 마그네슘, 칼슘, 자당 등 미네랄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 있어 관절염은 물론 이노비린 비·위장병·신경통 등에 효험이 있다.

전남지역에선 보통 1월 말부터

시작해 3월 중반까지 고로쇠 수액을 채취한다.

특히 올해는 일교차가 13도 이상으로 크고 날씨가 따뜻해 양질의 고로쇠 수액이 많이 생산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순천 조계산, 광양 백운산, 담양 추월산, 곡성 봉두산, 구례 지리산, 보성 제암산, 화순 모후산, 장성 백암산 등 도내 17만 그루의 고로쇠 나무에서 올해 258만여ℓ의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른

판매소득은 7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지에서 마셔야 제격인 고로쇠 수액의 특성으로 인해 도내 주요 채취지역 인근 휴양림·펜션 등으로 매년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어 이에 따른 숙박시설 이용과 향토음식 판매 등으로 25억원 이상의 농외소득도 기대된다.

이 때문에 주요 고로쇠 산지에서는 수액 시음회와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관광객들의 유인과

고로쇠 수액 판매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백운산고로쇠약수영농조합, 구례고로쇠약수영농조합, 장성남창고로쇠영농조합 등은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자체 개발 용기 사용, 위생적 채취와 유통·저장시설 설치 등으로 고로쇠 수액의 품질 고급화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로쇠수액 생산을 위해 도내 900여 고로쇠 수액 생산자를 대

으로 최근 용기 등의 청결상태 유지, 외부인 유해물질 투입 방지시설 설치와 고로쇠 수액의 품질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윤병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고로쇠 수액은 매년 초봄이면 국민이 즐겨 마시는 대표적 천연 음료수”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본격 채취기인 다음달 10일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bungy@kwangju.co.kr



**설명절 앞두고 이웃돕기 ‘훈훈’** 무안을 청년회(회장 송태석)는 지난 19일 설명절을 앞두고 무안읍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독거노인, 결혼가정 등 118세대를 방문해 쌀(20kg) 150포대, 라면 20박스, 찜질용 파스 150개, 구급상자 47개를 전달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 전남도, 재해예방사업 1360억 조기 발주

### 위험지구 정비 등 94곳 내달 말까지 90% 발주

전남도는 올해 재해예방사업에 모두 136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2월 중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19개 지구) 692억원, 서민밀집지역 정비(11개 지구) 89억원, 급경사지 정비(5개 지구) 34억원, 위험저수지 개보수(11개 지구) 37억원, 소하천 정비(48개 지구) 508억원 등 5개 분야 94개 지구다.

2월 말까지 90% 이상 발주하고 6월 말까지 전체 사업의 60% 이상을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방재국장을 단장으로 2개 반 8명으로 조기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는 사전에 이행하고 설계용역 사용지소서 등 성과품을 중간에 납품받아 보상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기 발주를 위한 예산 성립 전 사용, 긴급입찰 등 각종 제도 활용, 토공, 배수펌프장 등 지장물 등은 우기(雨期) 전 우선 시공, 조기발주 및 준공 실적이 우수한 시군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할 계획이다.

공사 추진 단계에서는 여름철 피해 우려 구간을 우선 시공하고 자연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재해 예방사업이 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광록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은 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막고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여수, 도심순환 2층 투어버스 사업자 공모

### 다음달 3일까지

여수시는 도심순환 2층 투어버스 운영 사업자를 다음달 3일까지 공모한다.

사업자 선정 설명회는 21일 여수시 돌산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에서 규정한 한정면허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여수시에 사무소를 두면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여수시는 다음달 6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공모 신청업체의 사업운영 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또 세부 운영계획,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도심순환 2층 투어버스’를 오는 5월부터 돌산공원과 오동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와 도심 주요 관광지를 오가며 하루 8회 운행할 예정이다.

여수시 한 관계자는 “투어버스는 관광객 1000만명 시대 개막을 위한 여수의 새 상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는 여수시 관광과(061-659-3871)로 하면 된다.



## 낙안읍성 ‘팔진미 비빔밥’ 시식

‘낙안읍성 전통·향토음식 상차림 개발 자문단’은 지난 19일 순천 낙안읍성에서 이순신장군도 감탄한 ‘팔진미 비빔밥’을 개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시식 행사를 가졌다. 팔진미 비빔밥은 석이버섯·고사리·도라지·더덕·미나리·무·녹두·용추천어 등 낙안읍성 주변에서 구한 8가지 재료로 만든 것이다. <순천시 제공>

## 배 부산물로 기능성 치약 개발

### 전남도농기원

배 부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치약이 개발됐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배즙을 짜고 남은 부산물인 ‘배박’에서 석세포(石細胞)를 분리해 프라그제거 및 치석예방용 기능성 치약을 최근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배박은 배의 25~35%를 차지하는데 그동안 전량 폐기되거나 퇴비로 사용됐다.

농기원은 배박의 7~18%를 차지하는 석세포의 불용성 물질인 리그닌, 셀룰로스를 활용해 치약을 만들었다. 실험 결과 석세포를 5~10% 첨가시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기호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소 알나미를 이용한 동물실험을 통해 배치약의 프라그 및 치석제



배와 부산물인 배박으로 만든 ‘배로 치약’

거 효과를 조사한 결과 상업용 호두 껍질 치약에 비해 1.6~2.4배 높았다.

전남농업기술원 식품경영연구소 남승희 박사는 “배 치약은 잇몸 마사지 기능이나 프라그 제거력이 뛰어나며 인체 안전성이 높아 치약을 삼키기 쉬운 어린이나 당뇨환자, 임신부 등 입안 건강이 좋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bungy@kwangju.co.kr

## 전남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일부 조정

### 3월부터... 3만~5만원 미만 6000원 부담

전남 도서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 부담이 다소 늘 전망이다.

전남도는 오는 3월부터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연 내용이 일부 변경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섬 주민들은 운임이 5000원을 넘어도 최대 5000원만 부담했다. 하지만 바뀐 내용은 5000원 초과~3만원 이하의 현행대로 5000원만 내면 되지만 3만원 초과~5만원 미만은 6000원, 운임이 5만원을 초과하면 7000원을 부담한다.

운임 부담을 차등화한 것은 섬 주민 간 운임 지원 혜택의 편차를 줄이

기 위해서다.

또 2006년 운임비 지원제 시행 이후 물가와 여객선 운임 상승률 등을 고려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섬 주민의 92%가 3만원 이하 항로를 이용하고 있어 주민 부담이 크게 늘진 않을 거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또 지금까지 주민등록 이전 즉시 운임이 지원됐으나 이를 약용한 부정 수급 사례가 있어 주민등록 신고 후 30일 이상 지나야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 대신 7월 1일부터 섬 주민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도선비 20%를

새롭게 할인해준다.

대상 차량은 본인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으로 5t 미만 화물차, 2500cc 미만 승용차, 승선 인원 15인 이하 승합차다.

전남도는 올해 섬 주민 운임 지원 사업비로 지난해 76억원보다 15억원 늘어난 91억원을 확보했다.

이순만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도내 섬 주민 대부분이 3만원 이하인 단거리 항로를 이용하고 있어 추가 운임부담은 미미한 수준이다”며 “대신 차량 운임 지원 신설 등 전체적으로 섬주민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목포시 주민세 10년만에 2500원 인상

### 시의회 개정조례안 가결

목포시 주민세가 10년 만에 2500원 오를 전망이다.

목포시는 시의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공고 등 절차를 걸쳐 주민세를 인상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자치단체장이 1만원 안의 범위에서 주민세를 정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78조에 따라 현재 4500원인 목포시 주민세를 2500원 인상, 7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10년간 주민세를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매년 8억9000만원의 페널티를 감수해 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수차례 개선 권고를 받아 조례 개정이 불가피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조금으로 확보할 4억100만원의 보통교부세와 증액될 2억 3000만원의 주민 환원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인터넷에서 만드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장’ 상초월 비법!

#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